

## 교회 안에서 합당한 한마음 한뜻을 실행함

성경: 롬 15:5-6, 고전 1:10, 빌 1:27, 롬 32:39

- I. 우리가 한마음 한뜻 안에 있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 영 안에 한 혼으로 있기를 배워야 한다—빌 1:27.
- A. 한마음 한뜻 안에 있기 위해서,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그런 다음 한 영으로 우리의 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—빌 1:27, 2:2, 5, 4:2.
  - B.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은 몸의 생활 안에서 같은 혼이 되어,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들을 진심으로 관심하는 것이다—빌 1:27, 2:21.
    - 1. 우리가 몸 안에서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한 정도까지 체험하고자 한다면, 같은 혼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—빌 2:2, 19-20.
    - 2.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혼이 되었기 때문에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극도로 체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—고전 4:16-17, 16:10.
- II. 한마음 한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‘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’되어야 한다—고전 1:10.
- A.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실현하는 것을 막는 문제는 우리의 의견이다—마 16:22-25, 빌 2:2, 4:2.
  - B. 주님의 일과 교회생활과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요인은 우리의 의견이다—고전 1:10-13상.
  - C. 주님 앞에서 우리의 유용성은 의견이라는 문제에 크게 달려 있다—고전 7:25, 40.
  - D. 고린도의 믿는 이들은 완전하게 함께 합해지도록 고쳐질 필요가 있었는데, 그것은 그들이 조화를 이루어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가짐으로 같은 것,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—고전 1:10, 17-19, 22-24, 2:2.
- III.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합당한 한마음 한뜻을 가지려면,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것, 곧 한 가지 것을 생각해야 한다—롬 12:16, 15:5, 빌 2:2, 4:2.
- A. 성경 전체가 한 입을 갖고 있고 같은 것을 말한다—히 1:1-2상.
  - B.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모두 말하는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야 한다—마 12:34-37, 엡 3:17상, 요 7:16-18, 8:28, 38상, 12:49-50, 14:10.
  - C.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한다면,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할 것이다—엡 3:17상, 골 3:4, 고전 1:10.
  - D. ‘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’(롬 15:6)라는 말은 비록 우리가 많고 모두가 말하지만, 우리 모두가 ‘같은 것을 말한다’는 것을 의미한다—고전 1:10.
    - 1. 교회는 그리스도를 유일한 인격으로 갖고 있는 한 새사람이며, 이 인격이 우리가 하는 말을 통제한다. 따라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분명히 ‘같은 것’이다.
    - 2. 우리는 말하려고 할 때, 말하는 이 일에 있어서 말하는 인격이 나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.
    - 3.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자신을 인격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인격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, 이때 한 입이 있을 것이고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.
  - E. 한마음 한뜻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며, 이것의 결과로 우리가 밖으로 말하는 것에서도 하나가 된다—롬 15:5-6.

1. 한 생각과 한 입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머리, 곧 그리스도만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, 이것은 오직 그 머리에게만 한 생각과 한 입이 있으시기 때문이다.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 머리의 입으로 말해야 한다—골 1:18상, 빌 2:2, 5, 4:2.
2. 우리가 한마음 한뜻 안에 있을 때마다 같은 것을 말한다. 즉 한 입으로 말한다.
3. 한마음 한뜻과 한 입을 갖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서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여지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—엡 3:17상, 21.

**IV. 우리가 한마음 한뜻 안에 있고자 한다면,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져야 한다—렘 32:39.**

- A.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이외에 수많은 서로 다른 길들을 취하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다—요 14:6, 고전 1:30.
- B.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우리는 모두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져야 하는데, 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으로 조성된 마음이고, 한 길은 신성한 역량이 있는 우리의 내적인 생명의 법이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—막 12:30, 렘 31:33-34, 요 14:6상.
- C. 이 한 마음과 한 길이 한마음 한뜻이다—행 1:14, 2:46, 롬 15:6.
- D. 분열은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며,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길을 취한 결과이다.

**V. 한마음 한뜻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서 오직 하나의 '저울'만을 가져야 한다—신 25:13-16.**

- A. 서로 다른 저울추와 되를 갖는 부정직한 실행은 거짓이고 분명히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—요 8:44.
- B. 영적인 적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것을 유죄 판결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동일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저울추들과 되들, 곧 서로 다른 저울들이 있어서,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측량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측량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가리킨다.
- C.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는(딤후 3:15), 모든 사람을 재는 데 오직 하나의 저울만 사용되어야 한다.
- D. 서로 다른 저울들을 갖는 실행은 불일치의 근원이다. 이럴 때 우리는 하나와 한마음 한뜻을 지키는 대신에 불일치를 갖게 된다.
- E. 우리는 모두 주님에게서 긍휼을 입어 더 이상 서로 다른 저울들을 갖지 않고, 우리의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에 대해 동일한 저울을 가져야 한다.
- F. 우리가 오직 하나의 저울을 갖는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를 지키고 참된 한마음 한뜻을 가질 것이다—엡 4:1-3, 마 7:1-5.
- G. 우리가 오직 하나의 '저울'만을 가진다면,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처럼 공평하고 공정하고 의로울 것이며, 교회 안에서 하나와 한마음 한뜻을 지킬 것이다.

**VI. 주님의 최선의 움직임을 위해 모든 교회들은 한마음 한뜻 안에 있어야 한다—수 1:16-18, 6:1-16.**

- A.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은 것을 표명하고, 한 나팔로 같은 것을 널리 알리며, 같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—고전 4:17, 7:17, 16:1, 행 2:42, 롬 16:17, 딤후 1:4-5, 6:3.
- B. 모든 교회들은 또한 실행에서 동일해야 한다. 교회들이 실행에서 동일하지 않다면 이것은 한마음 한뜻을 손상시킬 것이다—고전 11:16.
- C. 주님의 회복 안에서, 특별히 주님의 최선의 움직임 안에서 우리는 오늘날 가장 중대한 필요가 한마음 한뜻을 회복하는 것임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—행 1:14.